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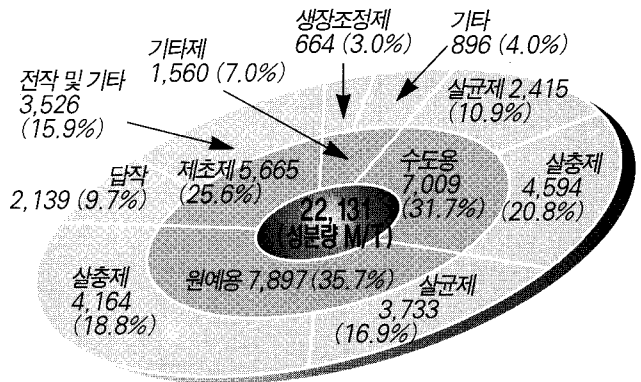


# IMF파고 덮쳐 몸집줄인 힘든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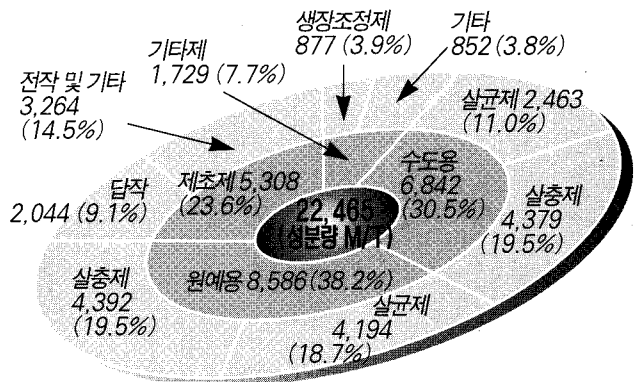
98년도 국내 농약 생산·출하량이 97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최근 농약공업협회가 잠정 집계한 추정치에 따르면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이 많았고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생산·출하량을 보면 수도용은 그동안 매년 증가했던 것과는 달리 살균제의 부진이 돌발해충에 따른 살충제에서의 증가세를 잠식해 다소 늘어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와는 달리 원예용농약과 성장조정제 및 기타제는 물론 일손부족을 대체해 왔던 제초제 마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농약생산량을 보면 2만2천1백31톤으로서 97년도 생산량 2만5천3백65톤의 87%에 그쳤다. 작물별로는 유일하게 수도용농약만이 7천9톤으로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나마 병해충 발생량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원예용농약은 7천8백97톤으로서 전년대비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였던 전년도 감소를 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제초제 역시 5천6백65톤으로서 10%가 감소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97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성장조정제 및 기타제는 1천5백60톤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농약출하량을 보면 전년도 출하량인 2만5천3백65톤의 90% 수준인 2만2천4백65톤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97년과 비교하여 수도용 살충제만이 10%정도 늘어났을 뿐 원예용은 14%, 제초제는 12%, 성장조정제 및 기타제는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정보**



작물별 약제별 생산량 구성비



작물별 약제별 출하량 구성비